모든 것이 한 점 마음에 달렸으니 이 생각 하나를 귀중하게 생각하라

☞ 19면에서 계속

그런데 축이 있습니다, 축. 우주의 축이 있는가 하면 인간의 축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에서부터, 이 축에서부터 오관을 통해서 정신으로 가서 이 전체의 몸을 통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 한 점, 그 한 점에 달렸습니다. 여러분이 구덩이에 빠지느냐, 안 빠지느냐도 한 점 마음에 달려 있으니 이 생각 하나를 귀중하게 생각하십시오. 아무렇게나 생각해서 아무렇게나 던지고 자식들한테도 아무렇게나 욕을 하거나 부부지간에도 아무렇게나, 조금만 잘못해도 "저런 도둑놈 같으니…" 아, 이렇게 말을 마구 하거든요. 그 생각,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사람에게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대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금방 그 자리에서 닥치진 않아도 그냥 그대로 닥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소홀히 생각하고 방치해 두고 아무렇게나 살고 있는 분이 많이 계시리라고 믿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이 계시리라 봅니다. 그렇다면 그 한생각이 내 몸을 끌고 가는 데 역점이 되고 또는 운전수가 되고 또는 사공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나침반도 될 수 있죠. 그래서 그 축이 모든 거를 행해 나가는 데는 여러분이 용광로와 같다. 용광로와 같아서 잘못된 거, 잘된 거 모든 거를 거기다 맡겨 놓으면 그냥 녹아 버린다.

이런 인연줄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이열치열과 같이 뜨거운 물은 뜨거운 물이 녹인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자기가 죄업을 스스로서 지은 거는 스스로서 그것을 녹여야지, 강제성을 띠어서 녹이는 것도 아니고, 칼로 끊어서 끊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오늘 내가 말씀해 드릴 것은, 우리가 일차적으로 내 몸 하나 건강하게 끌고 다닐 수 있는 여건을 갖는다면 바로 가정을 끌고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건 왜냐?

아까 내가 죽이는 것도, 잘못된 것도 잘못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에 대해 한마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한 몇 해 전입니다. 어느 신도가 정성을 보름 동안 지극히 들였는데 말입니다, 남편이 승진을 하려고 정성을 들였는데 끄트머리에 뭐가 나왔냐 하면 승진이 안 되고선 좌천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신도가 그냥 울고불고 그래서 그랬습니다. "안 되는 것도 법, 되는 것도 법이야." 그렇게 인제 쫓아 보냈죠. 그런데 서너 달 만에 와서 뭐라고 그러냐면 "참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아빠 대신 다른 사람이 승진이 돼 가지고 월남에 갔다 이겁니다. 월남에 가서 해골로 왔습니다 이거야.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뒤에 아빠는 또 승진을 했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선 울기에 "그것 봐." 그러고선 난 아무 소리 안 했습니다. 사람이 지내 보고 겪어 보고 자기가 걸어 봐야 알아요, 모든 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집념 있고 좀 인내 있게 기다리면서 지켜보면서 연구하면서 발전하면서 나가야지 그냥 절이나 하고 그냥 갖다 기도나 하고 그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야. 이건 기복이야, 어디까지나. 자기를 떠나서 '신이여, 나를 도와주시오.' 관세음보살, 문수보살, 지장보살, 무슨 약사보살, 집신 무슨 조왕, 뭐, 용왕 죄 찾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사람이 고정관념이 없다 아까 그랬죠? 고정관념이 없기 때문에 고정 행도 없고, 보는 것도 고정된 게 없고 듣는 것도 고정된 게 없고 가고 오는 것도 고정된 게 없고 먹는 것도 고정됨이 없어. 그래서 이 '색즉시공 공즉시색' 한 것이 바로 그 뜻이야.

'이것이 색이면서도 공했고 공이면서도 색이다. 너희가 보이면 보이는 그 물질이 다 공했느니라.' 이 소리거든. '너희 보이는 물질은 다 공했느니라.' 그렇게만 얘기해 놨지 자세히는 안 해 놨기 때문에 그냥 '색즉시공 공즉시색' 이렇게 외우기만 해. 공즉 색이다 하는 것은 '보이는 게 전부 공해서 한 찰나에 고정됨이 없이 돌아가는데, 그 찰나찰나 돌아가는 것이 그대로 꽉 차서 돌아가느니라.'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 너희가 한 찰나에 돌아갈 때, 내가 이렇게 돌아간다고 해서 한 찰나에 누구를 만났을 때 어떤 거를 할 때 내가 했다고 하겠느냐.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만났다고 하겠느냐. 어떤 거를 들었을 때 내가 이렇게 들었노라고 말하겠느냐. 어떤 거를 봤을 때 내가 봤다고 하겠느냐. 이렇게 해서 모든 걸 귀합해서 바로 그것이 '나'이자, '참나'이자 바로 공했느니라, (몸을 가리키시며) 이것이. 탑돌이 하듯 노상 돌아가고 있어, 이게. 오관을 통해서 노상 돌아가고 있다 이 소리지.

그러니 이 돌아가는 것을 누가, 어느 누가 '내가 부처'라고 말하며 '내가 중생'이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처, 중생은 둘이 아니니라. 동서가 둘이 아닌데 어찌 남녀가 둘이겠는가. 마음은 체가 없어서 무한량인데 어찌 남녀를 구별해서 너는 성불하고 너는 성불 못 하느니라 하겠느냐? 어린애가 코를 찔찔 흘리고 와도 그것이 바로 법담의 대상이요, 바로 스승의 대상이요, 일체 만물만생이 다 스승이며 중생이며 바로 부처 될 수 있는 그 생명을 가지고 있노라 했단 말입니다, 불성이 있으니까.

그러니 우리가 이 마음 자체를 깨닫는 데는 깨닫는다고 하지 말고 '아! 감흥이 됐어. 느꼈어.' 이러고, 이렇게 해서 깨달았다, 한 소식이다 이러는 거는 열반경지에까지 이르러서, 그릇이 다 비워졌을 때, 비고 나서 거기에 찰나찰나 내가 먹을 수 있고 줄 수 있고 맛을 알고 맛을 알게 해 주고 할 때 그것이 바로 열반의 경지라는 거야.

그러니 오늘날의 불교가 이렇게 기복으로만 나가기 때문에 자신을 알지 못하고, 자신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그 모든 일체 만법의 맛을 모르고, 먹을 줄 모르고, 줄 줄도 모르고 이거는 막막하기가 한량이 없어. 그러니 관절이 아프니 관절을 어떻게 처리해야만이 낫는지 그것도 모르고, 누가 그러는지도 모르고, 어디서 오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만 가는지도 모른다 이거야. 그럼 여러분이 죽는다 산다 이것이, 사후에 어떻게 되느냐? 이 문제들도 여간 참문제점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사후가 바로 지금이 있어야 사후가 있는 거지 지금 없는데 뭘, 뭘 가지고 말입니까?

어저께도 내가 얘기했지만 굼벵이가 매미가 될 수 있는 것은 그 근본 축이 있기 때문에 될 수 있다. 영원한 자기 생명이 있기 때문이다 이 소립니다. 그러면 대의적으로 봤을 때는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매미가 될 수 있죠. 그런데 매미가 돼서도 스스로 돼 있기 때문에 자기 마음의 차원이 조금, '나는 왜 기어 다니기만 할까? 왜 저렇게 날지 못할까?' 할 때 날게 될 수 있는 진화력이 생긴단 얘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건만도 굼벵이가 매미가 된 것도 모르고 매미가 굼벵이였다는 것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병이 어디서 왔는지, 내가 이걸 어디로부터 어떻게 해야 처리가 되는지 그것조차도 여러분이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니 인생이 늙어 가면서 얼마나 허무합니까? 벌써 이 세상에 생겨났다 하면 뚜벅뚜벅 죽으러 가는 형편이니 얼마나 허무합니까, 인생이. 고생은 고생대로 죽도록 하고, 쳇바퀴처럼 말입니다. 돌아가면서 자식 기르느라고 햇빛 주랴, 묵은 빚 갚으랴, 이건 여념이 없이 그냥 돌고 돌고 또 돌고 돌다가 머리는 허옇게 세어지고 인제 수족은 못 쓰게 되니 얼마나 허무한 문제입니까? 그런데 허무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려면 이 도리를 꼭 공부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늙으나 젊으나 이 몸이 있을 때 그 도리를 알아야 진화력이 생겨서 바로 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죽지 않는 도리를 알게 되고, 끄달리지 않는 도리를 알게 되고, 업을 지니지 않는 도리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만날 기복으로 그저 밥이나 해 놓고 떡이나 해 놓으면 부처가 잘 먹는 줄 알지만 여러분의 부처가 다 먹어치우고 가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이 부처가 '더 가져 오너라, 덜 가져 오너라, 많이 가져 오너라, 맛있는 거 가져 오너라, 다 내가 먹겠다' 이럽디까? 그러니 기독교나 가톨릭교나 불교나 기복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모두 말들은 좋지. "부처가 어디 있습니까?" "마음에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마음에 있죠." 이런 말들이야 뭐, 누군 못 합니까? 실천이 문제지. 그 근본의 실천이 문제라. 한 걸음 한 걸음 떼 놓을 때 공짜로 떼 놓지 말라 이겁니다. 말을 하면 그 뜻과 말과 행이 같아야 돼.

여러분이 따로따로 있지만 우리가 한번 이렇게 만날 때 여기 전부 앉아 있지만 둘이 아닙니다. 한마음입니다, 그대로. 그러나 여기서 나가서 헤어졌을 때는 너고 나입니다. 그래서 한 찰나에 이렇게 만나서 이럴 때는 원력이 있는 스님네라면 스님네한테 충전을 해 갑니다. 충전 있죠? 전기에 꽂아 놓으면 충전되듯이. 충전이 돼서 한 일주일 가면 또 충전이 빠져. 그럼 또 와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가발전소가 그대로 있으면서 가설이 된 데에 용도대로 자기가 스위치 눌러서 쓸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의 능력을 기르시라 이 소립니다. 그것이 바로 자유인이요, 그것이 바로 자유인의 법칙이며, 그것이 부처며 그것이 보살의 행위며 그것이 진리 아니겠습니까? 부처는 가만히 있으면 부처고 생각 냈다 하면 법이고 법신이고 아, 움죽거렸다 하면 화신인데 어째서 화신 따로 있고 법신 따로 있고 부처 따로 있고 아니, 중생이란 이름 따로 있고 그렇게 이름이 많아야 합니까? 그거는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서 조화를 이루려니까, 회전을 하려니까 이름을 지어 놓은 것뿐이에요.

여러분도 이름이 제각각이죠. 이름은 각각이나 그 이름이 해 줍니까? 이름은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할 때, 아무개야 부를 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이름을 지어 놓은 것뿐입니다. 그러니 이 능력에는 이름, 이런 것이 다 필요 없죠. 그러나 필요 없지 않다는 것은 그것도 하나도 버릴 게 없는 진리다 이겁니다. 그거 하나도 버릴 게 없다. 우리가 이름을 모르면 불러서 일을 시킬 수가 없고 이름을 불러서 서로 웃을 수가 없고 얘기할 수가 없고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 그러니 그 능력을 길러서 모든 걸 안다면 이 몸도 그냥 그대로 실상이 되는 것입니다. 실상이 된다 이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얘기해 드리려고 하는데 질문하십시오. 질문하신다면 또 답변을 해 드리죠.

다음 호에 계속

여러분은 늙으나 젊으나 이 몸이 있을 때 이 도리를 알아야
진화력이 생겨서 바로 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죽지 않는 도리를 알게 되고, 끄달리지 않는 도리를 알게 되고
업을 지니지 않는 도리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위 법문은 대행 선사 법문집 《허공을 걷는 길》 중 1987년 5월 24일 국외지원법회 법문의 일부를 정리한 것입니다.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

함께 이룬 30년
다시 뛰는 BTN

BTN불교TV를 향한 성원에 감사드리며,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뜰 앞의 잣나무
본 목 12:00 재 목 22:30 / 일 15:00

문광스님의 한국학 에세이
본 화 07:30 재 화 19:30 / 토 12:00

진명스님의 지대방 시즌3
본 화 12:00 재 화 22:30 / 토 16:00



자현스님과 떠나는 붓다로드 시즌2
본 금 08:30 재 금 19:30 / 토 15:00



법장스님의 투게더
본 금 07:30 재 금 16:00 / 일 23:15



다여스님의 땅설법
본 월 13:00 재 월 22:30 / 토 19:30



고인사이드 글로벌
본 수 07:30 재 수 20:30 / 토 08:30



꽃보다 출가
본 화 09:30 재 화 21:30 / 수 16:30



마음 여행을 위한 GPS 명상
본 수 13:00 재 수 23:15 / 일 14:00

BTN 채널안내 | GENIE TV 233번 Btv 295번 U+tv 275번 skylife 181번 지역 케이블 문의 : 02)3270-3300